



KOREAN B – STANDARD LEVEL – PAPER 1
CORÉEN B – NIVEAU MOYEN – ÉPREUVE 1
COREANO B – NIVEL MEDIO – PRUEBA 1

Friday 21 May 2010 (afternoon)
Vendredi 21 mai 2010 (après-midi)
Viernes 21 de mayo de 2010 (tarde)

1 h 30 m

TEXT BOOKLET – INSTRUCTIONS TO CANDIDATES

- Do not open this booklet until instructed to do so.
- This booklet contains all of the texts required for Paper 1.
- Answer the questions in the Question and Answer Booklet provided.

LIVRET DE TEXTES – INSTRUCTIONS DESTINÉES AUX CANDIDATS

- N'ouvrez pas ce livret avant d'y être autorisé(e).
- Ce livret contient tous les textes nécessaires à l'Épreuve 1.
- Répondez à toutes les questions dans le livret de questions et réponses fourni.

CUADERNO DE TEXTOS – INSTRUCCIONES PARA LOS ALUMNOS

- No abra este cuaderno hasta que se lo autoricen.
- Este cuaderno contiene todos los textos para la Prueba 1.
- Conteste todas las preguntas en el cuaderno de preguntas y respuestas.

본문 A

서울의 음식점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에 선정된 128 곳의 음식점은 맛과 건강을 기본으로 삼아, 철마다 나는 가장 신선한 재료를 전통적인 조리법으로 정성껏 요리하여 한국음식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03 년부터 해마다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음식점 <소심>

종로구 관훈동 143-1
3 호선 안국역 6 번출구
인사동 입구 쪽으로 도보 1 분거리

11:30-22:00 (일요일 휴무)
02)734-4388
주차장 없음

소박하고 정갈한 사찰음식

전통적인 건강식이자 장수음식으로 알려진 사찰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표고, 다시마 등의 재료로만 맛을 내고 육류와 오신채, 젓갈이 들어가지 않아 모든 음식들이 담백하다. 치자물로 고운 빻깔을 낸 모듬전 등이 채식 정식의 맛을 풍요롭게 만든다.

추천메뉴

비빔밥 W 10,000
버섯전골 W 12,000
소심정식 W 15,000

[위의 음식의 가격은 2007 년 12 월 기준입니다.]

« 서울의 자랑스러운 한국음식점 » 2008

본문 B

가벼운 택시

‘가벼운’ 택시는 불황의 계곡 가볍게 넘을까

❶ 1천cc급 경차 택시가 곧 선을 보인다고 한다. 택시기사들은 LPG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좋고 승객들은 좀더 싼 비용으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 서로에게 번득이는 소식이다. 주판알을 알차게 튕겨 1천6백cc급 준중형 택시 9대를 운행하는 택시회사의 사례를 보자. 현행법상 '중형 택시는 1천5백cc 이상의 승용차로 규정되어 있어 준중형을 과감히 도입했다. 중형 택시보다 연료비가 30% 이상 절감되어 요즘 같은 불황에도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성공 사례를 다른 회사들로 확대하기 위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택시 및 운송업 대책 태스크포스'까지 구성해 경차를 택시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 중이다. 경차 택시에 대한 수요는 오래전부터 있었다. 정부가 지난 11월 실시한 '생활 공감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경차 택시를 도입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된 바 있다.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당시 공모전 결과를 소개하면서



"택시 배기량을 다양화해 승객들 입에서 '경차여도 타보니 좋더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며 다양한 민심을 전하기도 했다.

❷ 외환위기 이후 길거리의 택시들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질은 오히려 나빠졌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단거리 고객의 승차를 거부하기 일쑤였고, 과속 운행을 일삼는 택시들이 허다했다. 승객에게 거스름돈을 주면서 100원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꿀꺽하는 기사들도 있다.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본 고객이면 택

시를 타고 난 뒤의 기분이 별로 유쾌하지 않다는 데 동의할 것이다.

❸ 이렇게 아등바등 벌어도 택시 기사들의 주머니 사정은 팍팍하다. 이번에 나온 '택시산업 종합 대책'이 택시기사도 만족하고 승객들도 만족하는 윈윈의 결과를 낳았으면 한다. 더 나아가 불황의 계곡을 넘어 누구라도 택시를 뒀을 때 '먹고살기가 좋아졌다'라는 말을 들어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

SISA JOURNAL 2008.12.16

본문 C

톡톡 튀는 수출이 밥먹여 줍니다

- ❶ 경기침체가 선진국을 넘어 신흥시장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주력 산업의 수출마저 급감하고 있다. 산업현장에선 “I-X-I”는 푸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남들이 하지 못한 발상의 전환과 끈질긴 현지화 및 기술개발 노력으로 틈새 수출시장을 개척해 ‘짹짹’ 재미를 보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의 시장 진출에 성공한 대표적인 중소기업의 사례를 살펴 본다.
- ❷ 어린이 놀이기구와 운동기구를 생산하는 유니온랜드는 23 개 나라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직원이 150 여명인 중소기업이지만, 생산과 매출 규모로 보면 아시아권에서 1 위다. 이 회사는 지난 한 해 수출 70 억원을 포함해 총 400 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회사 안에서는 “I-18-I”는 반론이 적지 않았다. 낮에 찌는 듯이 더워, 플라스틱 제품이 형태를 그래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고온에 견디는 내구성을 확보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직원들이 제품 개발에 매달린 결과 중동에서도 통하는 놀이터를 개발해 낼 수 있었다. 이 회사는 디자인에도 신경을 많이 써, 2007 년 한 해에만 112 건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하는 기록을 세웠다.
- ❸ 유닉스전자가 전문 이미용기 세계시장 점유율 3 위가 된 것은 끊임없는 ‘현지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예컨대 이 회사는 중남미 사람들에게 적합한 고데기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이 지역은 흑인 뿐만 아니라 라틴계, 히스패닉계 등 다양한 인종이 고루 섞여 사는 데, 인종마다 머리카락 특성이 달라 제품 개발이 쉽지 않았다. 이 회사의 김성훈 과장은 “I-19-I” 고 말했다. 유닉스 전자는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 한 해 새로운 수출시장인 동유럽에 400 만 달러어치를 수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 ❹ 세트랙아이는 국내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개발에 참여했던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이 지난 1999 년 설립한 곳이다. 미국, 유럽 등 우주산업 선진국 회사들을 제치고 2005 년에 말레이시아에 2008 년에는 두바이에 소형 인공위성을 수출했다. 말레이시아에 수출한 인공위성은 2006 년 발사돼 지구 환경변화 관측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지난 해에는 인공위성에 장착하는 정밀카메라도 터키에 수출했다. 전봉기 기획팀장은 “I-20-I” 고 설명했다.
- ❺ 신풍제약은 50 여개 나라에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특히 아프리카 지역의 매출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곳에 말라리아 같은 풍토병과 전염병 치료제는 물론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 80 여 종의 의약품을 수출하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에는 현지공장까지 두고 있다. 최영선 홍보부장은 “I-21-I” 고 말했다.

한겨레 2009

본문 D

이세돌 기념관

비금도 ‘바둑 천재’ 금의환향

이세돌 9단 기념관 내일 고향서 개관



이세돌 9단의 어머니 박양례(62)씨가 전남 신안군 비금도 이세돌바둑기념관을 소개하고 있다. 26일 개관하는 이 기념관은 신안군이 폐교를 리모델링해 만들었다. 프리랜서 오종찬

10세 소년은 바둑을 공부하기 위해 섬을 떠났다. 16년 뒤 그가 떠난 섬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사가 된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세워졌다.

전남 신안군은 26일 오전 비금도에서 이세돌바둑기념관 개관식을 한다. 기념관의 주인공인 이세돌(26) 9단과 한국기원 관계자, 지역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행사에 참석한다. 기념관은 이 9단이 태어났고 현재도 어머니가 사는 집과 차로 5분 거리에 마련됐다.

신안군이 7억5000만원을 들여 옛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지상 2층, 연면적 798㎡ 규모로 만들었다. 1층에는 바둑 대국장과 이세돌 자료 전시실, 추억의 공간을 꾸몄다. 2층에는 숙소를 갖췄다. 26일 개관식 뒤 기념관에서는 이세돌 9단과 강동윤 8단의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대국 5번기가 열린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여름·겨울방학 기간 등에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각종 바둑대회와 대국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9단과 한국기원 관계자 일행은 특별한 환대를 받는다. 신안군은 25일 오후 목포에서 비금도까지 행정선을 운항한다. 일반 여

객선을 타면 2시간가량 걸리지만 행정선은 1시간이면 된다. 이날 저녁 섬에서는 지역 기관단체장 및 섬 이장단이 환영 만찬을 베푼다. 신안군은 이번 행사 대비를 겸해 섬 중심도로 13km를 두 달 전 다시 포장했다. 이 9단의 제자 35명과 학부형들도 축하하기 위해 24일 섬을 찾았다.

이 9단은 “대국 일정이 빡빡한 데다 날씨가 나쁘면 수일씩 발이 묶이는 섬이라 최근 두어 해 동안 고향을 못 갔다”며 “기념관을 갖는다는 게 영광스럽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서 쑥스럽기도 하다”고 말했다.

비금도에서 태어난 그는 5세 때부터 아버지(1998년 작고)에게 바둑을 배웠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서울로 가 권갑용 7단 문하에서 본격적으로 바둑을 공부하다 만 12세4개월 때인 95년 7월 프로로 입문했다. 2006~2007년 연속 ‘한국바둑 대상’을 수상했고 14개월째 한국 기사 랭킹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친형(이상훈 7단·33)도 프로기사고, 누나(이세나·32)도 이화여대 국문과 재학시절 대학생 최강자로 군림하다 현재 호주에서 바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